

# 전주국제영화제 '컨퍼런스' 론칭

'영화의 미래: 우리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주제로 5월 2~4일 진행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제13회 전주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외 영화산업의 화두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전주컨퍼런스'를 론칭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전주컨퍼런스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영화와 콘텐츠 산업이 고민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영화계 담론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준비했다.

전주컨퍼런스는 '영화의 미래: 우리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과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영상산업의 재편과 OTT'로, 지난 1년간 급성장한 국내 서비스 중인 글로벌 OTT 플랫폼을 둘러싼 제작사, 배급사, 정책 담당자들의 고민을 풀어낸다.

이 자리에서는 대안 플랫폼으로 주목할 만한 국내외 OTT 서비스를 소개한다.

두 번째 주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서사에 대한 담론을 모은 티켓 파워를 보이는 여성들, 그들이 읽히는 이야기다.

최근 글로벌 OTT 플랫폼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각광받는 여성 서사를 중심으로 감독과 배우, 제작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또 SJM 문화재단과 전주국제영화제가 공동주최하는 '한국의 다큐멘터리 편집과 편집자(가제)'에서는 다양한 이력을 가진 다큐멘터리 편집 감독들과 다큐멘터리 편집 작업의 특수성,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밖에도 전주영상위원회가 주최하는 '전주 영상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컨퍼런스'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JICA)이 주최하는 '2021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컨퍼런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주최하는 공동제작 컨퍼런스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전주컨퍼런스의 주요 세션들은 전주국제영화제 유튜브 공식 계정으로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시간표와 참석자는 4월 초 오픈하는 전주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국제영화제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미디어 산업의 현재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 경향을 분석해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가능한 대안과 실험적 시도를 행하고 있는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양한 지식과 매체를 통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전주컨퍼런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뉴시스



고창문화의전당 전경.

## 고창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 선정

민간단체 우수공연 4개 작품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고창군이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민간단체 우수공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등에 선정돼 국비 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회관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연비를 일부 지원해 문화예술회관의 기획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선정된 우수공연 4개 작품은 ▲新 뽕과전=관소리 다섯 마당 중 심청가의 일부부분으로, 통쾌한 풍자와 절절한 해학으로 서민들의 울분을 달래주고 신명을 풀어내는 마당놀이 ▲사랑은 비를 타고=26주년을 맞이한 국민 뮤지컬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형제애와 전 세대를 관통하는 성장 스토리. ▲나의 어린 왕자 이야기=전 세계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의 감동과 여

운을 발레공연으로 풀어낸 발레극 ▲오늘 하루=끊임없이 찾아오는 불행에 이겨내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사랑의 가치,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는 따뜻한 뮤지컬 등이다.

고창문화의전당 서영길 공연기획담당자는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고 기획하면서 평소 공연을 접하기 힘든 문화소외 계층을 30% 초청해 문화 나눔의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청소년 예술감상 교육 프로그램인 '노는 토요일! 꿈꾸는 토요일!(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공모선정)'은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수준급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군청 백재욱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 19에 지친 군민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군민들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청춘마이크사업 대한 입장문 발표

재단이 지난 3년간 전북권 주관처로 성실히 운영·중앙 공모기관에 질의 충분기 가능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청춘마이크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했다.

재단은 올해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에 응모했다. 이번 공모에는 작년 재단과 파트너십을 이루며 사업을 함께 해 온 현장 협력업체 참여자가 또 다른 단체 대표로 참가했다.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2차 발표 날, 최종 선정 결과에서 재단은 탈락했다.

국가공모사업의 일부 사업들이 지역의 광역 재단 및 기초재단 그리고 문화예술단체가 서

로 경쟁자로서 참여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에 재단은 광역 재단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역의 기초재단이나 문화예술단체와 경쟁구도에 놓인 사업에는 최대한 참여를 자제했다. 하지만 청춘마이크 사업은 재단이 지난 3년간 전북권 주관처로 성실히 운영을 해 온 사업이다.

특히 중앙 공모기관에 질의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및 안내문의 유의사항에 특별히 명시된 규정이고 공모에 참여한 기관으로서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이상 충분히 질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이기전 대표이사는 "이것이 마치 광역

재단이 지역의 단체를 무너뜨리려는 모습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길 바란다"는 재단 입장을 전했다. 또 일간지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해 해당 건의 본질을 벗어나 보도하며 재단이 그동안 전북예술인의 디딤돌 역할을 위해 노력해 온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 염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지역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조금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한국-아랍에미리트 축제' 마마무~에스파 출격

31일~내달 2일까지 온라인 개최

아랍에미리트 시장에 한류 콘텐츠를 소개하고 현지 한류팬들과 소통하는 '한국-아랍에미리트 축제'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온라인 개최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2021 한국-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으로 마련됐다. '문화의 융합'을 슬로건으로 '케이팝 페스티벌'과

'케이콘텐츠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케이팝 페스티벌에는 ▲마마무 ▲비아이지 ▲아스트로 ▲NCT 드림 ▲더보이즈 ▲에스파 등 한국 아티스트 6팀과 아랍에미리트 가수 파티마 알하쉬미(Fatima AlHashmi)가 참여한다.

공연은 4월 3일 오전 12시(한국시간)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유튜브, 더 케이팝 유튜브, 네이버 브이 라이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공개된다. 4월 8일 오후 10시(한국시간) SBS MTV, SBS F!L 채널, 아부다비TV에도 송출된다.

케이콘텐츠 페스티벌은 만화, 게임, 실감콘텐츠

츠 등 장르별 콘텐츠와 식품, 뷰티 등 케이콘텐츠와 연계된 소비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 아랍에미리트 대표로 출연한 삼사가 실감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현지 유명게임 유튜브 바샤크가 케이게임을 시연하고 리뷰한다. 100만 유튜브인 잔나코리아는 인기 웹툰 '여신강림'의 화장법을 연출하고 아랍어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유튜브 하이쿠리는 떡볶이를 조리한다.

중동 쪽에 특화된 인플루언서들이 한류 연구 상품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통해 케이콘텐츠를 통한 국내 연관 산업의 중동 시장 동반진출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뉴시스

## 출판진흥원, 30일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유튜브 설명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오는 30일 오후 2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지난달 22일 고시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10종의 계약서별 주요 조항을 설명한다. 출판진흥원 누리집에 접수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있다.

설명회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를 맡은 세명대 김기태 교수, KI매니지먼트 이구용 대표, 교보문고 이은호 차장이 맡는다.

출판진흥원 유튜브에서 중계된다. 이달 29일까지 사전 참여 신청을 받는다. 출판계 종사자

와 저작자뿐 아니라 표준계약서 활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개최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대일 상담 채널도 운영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카카오톡 채널에 질문을 남기면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해당 표준계약서에 대한 출판계와 저작자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해설서를 마련, 온라인 배포 중이다.

/뉴시스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 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